

경제

Biz & Economy

10 광주일보

제17438호 2006년 5월 3일 수요일

주가 +15.17 1,434.90 (코스피지수)	환율 -3.10 940.20원 (원/달러)	금리 +0.01 4.82%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87.84 (+2.40)	
다우 (1일)	11,343.29 (-23.85)	
나스닥 (1일)	2,304.79 (-17.78)	
닛케이	17,153.77 (+228.06)	
엔-달러 환율 (도쿄 17:00 기준)	113.48엔 (-0.13)	
유로-달러 환율	1.2568달러 (+0.33)	
3년만기 회사채	5.09% (+0.01)	
클레리	3.95% (-0.02)	

농협전남본부 월드컵 4강 기원 내달말까지 '환전대잔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2일부터 6월30일까지 2006년 월드컵 4강 진출을 기원하는 1차 '갑동 2006. 환전대잔치' 행사를 각 점포에서 실시한다.

이번 대잔치는 2002년 월드컵 4강 쾌거에 이어 전 국민의 열원인 2006년 월드컵 4강 재진출 달성을 위한 전 국민적 열기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외화환전 등 거세서 우대환율 및 수수료 우대를 제공하는 행사다.

내용은 ▲행사기간 중 환전고객에게 70% 환율우대 ▲독일행 항공권 소지자에게 환율 10% 추가우대(총 80%) ▲개인 송금 고객에게 당발송금수수료 50% 할인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행사기간 중 미달러와 기준 500불 이상 환전고객과 1천불 이상 당발송금 고객 중에서 행사종료 후 전산추첨(7월초 예정)을 통해 고급 축구공, MP3, PMP, 200만원 상당 해외여행권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광은 가정의 달 고객사은행사 '효도 송금' 수수료 면제

광주은행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양한 고객 사은행사를 마련했다.

광주은행은 4일부터 9일까지 '효도송금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면제대상은 자녀가 부모에게 송금하는 경우와 60세이상 고객이 송금할 때, 광주은행간 100만원 이하 송금에 한해 청구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광주은행은 또 오는 3일과 10일 전남지역 초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를 초청, 금융기관과 월드컵경기장 등을 보여 주는 현장학습을 실시한다.

5일에는 광주비엔날레 광장에서 광주·전남지역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그림대회를 연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미분양아파트 감소행진 '스톱'

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4월 들어 크게 증가하는 등 미분양 현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최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잇단 분양으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한달새 무려 두배 이상 급증하면서 10개월째 이어오던 미분양 감소행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4월말 현재 광주·전남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총 2천895가구로 지난 3월 2천99가구보다 38%(796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단지도 총 32곳으로 3월 27곳에 비해 5곳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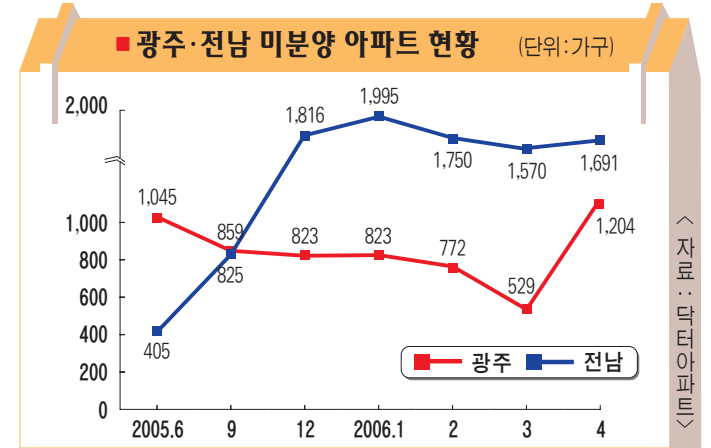
광주의 4월 미분양물량은 총 1천204

4월중 광주 1,204가구...전달보다 128% 급증 대단위 아파트 분양 여파... 당분간 지속될 듯

가구로 3월 529가구보다 무려 127.5%(675가구) 늘어난 가운데 단지 수도 16곳으로 한달새 4곳이 늘어났다. 구별로는 북구가 879가구(10곳)로 미분양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남구 164가구(1곳), 광산구 97가구(1곳), 서구 55가구(3곳) 등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처럼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한 것은 3월말 이후 북구와 남구를 중심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분양이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북구의 경우 최근 3개 업체의 아파트분양이 집중되면서 3월 356가구보다 147%(523가구)나 늘어났다.

전남도 4월중 미분양물량이 총 1천691가구(16곳)에 달하면서 3월 1천570가구(15곳)보다 7.8%(121가구·1곳)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 1월 1천995가구에서 2월 1천750가구로 떨어진 이후 2개월째 미분양이 감소했지만 3개월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 광역시 및 지방중소도시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4월말 현재 전국 광역시 및 지방중소도시의 미분양 물량은 총 2만4천983가구로 3월 2만2천665가구보다 10.2%(2천318가구) 증가했다.

특히 광역시의 미분양아파트는 9천866가구로 3월 7천614가구보다 29.5%(2천252가구)나 늘어나면서 지방 미분양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광주는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째 감소세를 보였으나 잇단 아파트 분양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면서 "광주·전남의 경우 실수요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일부 업체들이 이달중 분양을 계획중이어서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리고기 많이 드세요"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2일 오리데이를 맞아 남구 대촌 압춘마을, 광산동곡 침산마을, 삼도 가산마을 노인 등 500여명을 초청해 오리고기 전시 및 무료시식회 등 장수고객 이벤트 행사를 가졌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상의 집행부 직무정지 ■향후 전망

본안소송 무효판 재선거 “商議개혁으로 거듭나야”

제19대 광주상공회의소 상공의원 및 회장선거가 부당하게 치러졌다면서 금호종금 등이 신임 임원들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2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 선거가 사실상 불법적으로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들과 경제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주상의가 환골탈태해 위기에 처한 광주경제를 위해 책임있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 어떻게 되나=상의회 회장 선거무효확인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마형렬 현 광주상의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광주상의는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호와 상의측이 추천한 직무대행후보 가운데 특정 대행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직무정지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마저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경우 선임된 직무대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상의 바로 서야=금호아시아나 측 관계자는 “광주지법의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지난 선거과정에서 상공인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공분화됐던 불합리한 선거규정을 개정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지닌 상공인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명을 요구한 한 상공의원은 “불합리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존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직무정지가처분에 이어 선거무효소송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재선거는 광주와 광주상의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정관에 의해 화합의 분위기에서 치러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한 회원은 “일부 업종이 상의를 좌우할 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별 상공의원 분배나 의원수도 조정해야 한다”면서 “이제부터라도 광주경제의 발전을 위한 성장가를 받아 정관을 개정하고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GS칼텍스 1조5천억 투입 여수에 2007년까지 HOU시설

GS칼텍스가 사상 최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 중질유분해탈황시설(HOU) 사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S칼텍스 허진수 사장은 2일 여수공장내 홍보관에서 열린 언론사 대상 HOU프로젝트 사업 설명회에서 “HOU 사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회사 경쟁력 확보는 물론 고용 창출 등 여러 면에서 지역 경제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GS칼텍스는 2007년까지 여수공장 인근 우순도 매립지 13만평에 1조5천억원의 투입을 들여 하루 5만5천배럴 처리 규모의 HOU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HOU 시설은 고유황 중질유인 bunker유를 탈황 과정을 거쳐 등급과 경유를

비슷한 경질유분과 고급 윤활기유를 생산하게 된다.

GS칼텍스는 공사현장에 연인원 220만명, 하루 최고 6천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업 가동 후에는 근로자 200명 및 협력사 근로자 100명 등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가동 후 매출과 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와 지방세 납부액도 증가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장 처리능력 향상에 따른 불량 및 수출 증대로 해·육상 수송 등의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들어오세요!

마지막 분양 - 34평형

2년 전 분양가로 내 집 마련하세요!!

문의: 02-55-7818

이 집마다 두들산을 산책하니까 환풍호

오네프빌

57-62-53-48평형 / 즉시 입주가능

225-0070